

景武臺庭園으로 移建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德壽宮內 國立博物館 中央陳列室로 移建하게 되었으며 八月四日 그 工事が 實施되었다.

○ 梨大博物館 竣工

其間 新築中이던 梨大博物館은 現代式 二層 建物の 竣工을 보게 되어 지난 五月 盛大한 開館式을 하고 特別行事로 北山展을 열었다. 同博物館의 展示品은 石器時代부터 李朝에 이르는 各時代 各分野에 걸친 것이며 特別 李朝陶磁가 出色이다.

○ 金冠塚 金冠 慶州復歸

六·二五動亂時 美國으로 安全疎開되었던 金冠塚遺物一括은 지난번 國寶 美國 展示時에 함께 展示되었다가 一九五九年 七月에 無事히 歸國하여 今八月에 다시 慶州博物館으로 復歸하였다. 慶州分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慶州市民들을 위하여 매우 기쁜 일이라고 하겠다.

○ 感恩寺址報告書 準備中

昨年 十一月부터 今年初에 걸쳐 國立博物館에서 實施한 月城郡 陽北面 龍堂里 感恩寺址發掘結果는 同地 西塔 發見 舍利藏置와 함께 方今 報告書가 作成中에 있으며 今年 九月頃에 發刊되리라 한다.

○ 景福宮 古蹟 指定

總十一萬坪에 達하는 景福宮 全體가 그 위의 古建物 全部를 包含하여 今年 七月 二十二日附로 古蹟 第一六三號로서 指定되었다.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校里 磨崖佛銘

李 弘 植

— 第一卷 第二號 通卷 二號 —

廣州郡 東部面 春宮里에서 東南쪽으로 一料도 못되는 山골짜기에 조금만 瀑布水가 있고 그 옆에 磨崖佛이 있는데 이 곳을 이 地方에서는 「客山瀑布」라고도 하며 또는 「藥師골」이라고도 하는데 元地名은 校里로 되어 있다. 지금 이 瀑布水가 내리는 左便에 一農家가 있는데 그 터와 그 瀑布水 上部의 廣豁한 地帶가 옛 절터로 되어 있는 모양이나 그리 큰 절은 아니며 庵子程度로 推測되는데 瀑布 옆에 藥水가 있다. 이 藥水로 因하여 硯岩壁에 藥師如來坐像을 彫刻한 모양이며 여기에는 太平(興國) 二年의 銘文도 있어서 우리의 注意를 끄는데 이것이 그리 널리 學人들 에게 알려지지 않은 듯도 하며 近者에 編纂 刊行된 京畿道誌, 古蹟, 名勝篇(同書, 下卷)에도 보이지 않으니 여기에 簡單히 紹介하는 바이다. 이 磨崖佛은 結跏趺坐의 藥師如來坐像이며 무릎에 위로 한 左手掌上 에는 藥合을 가지고 右手는 施無畏의 手印을 나타내어 있다. 光背는 頭光과 身光이 다 三重圓으로 되어서 그 周邊에는 火焰이 붙어 있다. 坐臺는 伏瓣위에 二重臺石이 있고 그 위에 四箇의 短柱로 上坐臺石을 支持하고 여기에 五瓣의 仰蓮臺가 벌어져 있고 各瓣에는 寶相花文이 얹혀 있다. 刻線이 稚拙하지만은 佛像의 均衡도 잡히고 特別 面貌는 新羅佛의 餘韻을 보이는 듯하다.

全 高 九三cm 佛像坐高 四三cm

膝 幅 四一cm 肩 幅 一一cm

光背高(頭光, 身光) 四三·五cm

여기에 特別히 紹介할 것은 이 磨崖佛 左下便에 陰刻된 다음과 같은 銘文인 바 書體는 拙劣하다.



太平二年丁丑七月廿九日古石佛在如賜乙重脩爲今上皇帝萬歲願

吏讀文이 섞여 있는 것이 注意된다. 文意는「(年月日略) 古石佛전다손을 重修하여 今上皇帝萬歲를 願하니라」라고 읽어

둔다. 太平二年丁丑은 公敎롭게 中國의 三國時代 吳의 年號로 二五七、隨末의 年號로 六一六이 있으나 여기서는 宋太宗의 太平興國二年丁丑(九七七)으로 본다. 太平興國을「太平」으로만 부른 例는「太平御覽」등에도 있다. 즉 高麗 景宗二년에 該當한다. 佛像의 모습으로 보아서 高麗初로 보는 것이 妥當하며 光宗때에는 光德、또는 峻豊이라고 建號하였고、十一年에는 開京을 皇都라고 하였으니 그 餘風이 景宗初까지 行하여「今上皇帝」라고 一般이 使用하였음도 妥當性이 있다. 그런데 銘文에 古石佛이 있었던 것을 重脩하였다는 말은 좀 異常하다. 이 磨崖佛에는 뒤에 손을 낸 것 같은 자취는 없어 보인다. 그 전에 보잘것없는 小佛像이 있었던 것을 此際에 다시 이만한 磨崖佛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未審하다. 一九五六年에 廣州에서 出刊한「百濟舊都南漢秘史」中에 이 磨崖佛이 紹介는 되었으나 銘文을 다 읽어 놓지도 않았고 거기에 對한 考證도 不備하니 여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高麗青銅梵鐘의 新例(其一)

黃 壽 永

現存하는 高麗梵鐘의 大半은 日本에 流傳되어 있는바 그에 關한 論文

第一卷 第二號 通卷 二號

若干篇이 最近에 日本에서 發表되었다. 解放以來 國內의 新資料는 新羅가 一口、高麗가 十數口에 達하였으며 李朝의 것으로는 日帝末의 供出騷動을 冒免한 相當數가 保存되고 있다. 以下 새로 調査된 高麗遺鍾의 資料를 簡略히 記錄하여 두겠다.

### (1) 頭正寺銅鐘(在銘)

高麗大學校 博物館 所藏

出土地와 保存經緯는 未詳인바 六·二五戰亂中 서울市內에서 火傷되어 黑赤色을 보이며 鍾體에 龜裂이 있고 下緣은 橢圓形으로 歪曲되었다. 龍鈕와 甬筒이 具備한 通式의 中鍾으로서 細技葉文의 上下帶가 있고 肩上四處에 乳廓과 그안에 九乳가 配置되었으며 乳廓間地 下面에는 撞座와 飛天紋이 交代하였는데 撞座는 連珠帶內에 八顆十三瓣의 蓮花紋이 影飾되었으며 飛天은 合掌坐像인데 雙圈光背와 花文臺座를 갖고 있다. 肩上面에는 立狀花瓣帶가 周回하였으나 一部 缺落하였고 甬上에는 五珠가 裝飾되었으며 雙龍兩足은 爭珠의 形式을 보인다. 鍾體 乳廓下에는 諧書大字의 記銘이 陰刻되어 있다.

己亥正月廿九日

乃山村叫卯僧

兩親父母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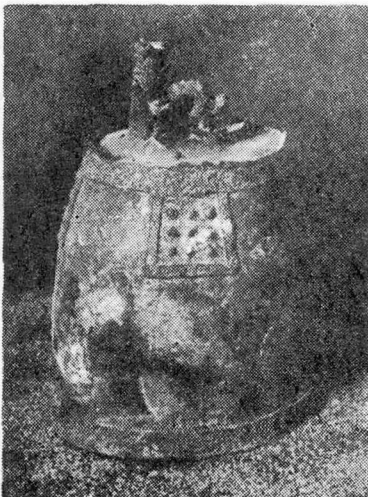
以夫妻發心

為鐃鍾成大匠斧

道梁州頭正寺

銘文에는 以爲와 갈은 吏讀가 混用되었는데 西紀十三世頃 高麗末의 作品으로 推定된 다.

總高三九cm 上徑一九·五cm 下徑 三三·五cm 와 二五cm



(1) 頭正寺銅鐘